

지자체, 투자유치 ‘목청’ 시스템은 ‘허술’

■장흥에 820억원 투자 무산된 싱가포르 기업의 하소연

전남지역에 82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성사단계까지 갔던 외국 투자업체가 장흥군과 전남도 등의 미온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 측 투자기업의 문제로 예정된 투자협약식이 무산된 뒤 두 달여간 아무런 설명이나 재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외국업체는 지난달 결국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장흥군에 보냈다.

6일 전남도와 장흥군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소재의 관 인베스트먼트 측은 지난해 2월 한국 측 투자기업과 8대2 지분으로 합

작회사인 관한국장유테마파크(주)를 설립했다. 이후 전남도의 특화산업단지인 장흥 바이오산단 내 29만5000㎡에 3만~5만개의 장독대 등을 특징으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장흥군, 전남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관 인베스트먼트는 한국 측 투자기업이 2000만 달러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면 3년간 50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및 테마파크 조성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한국 측 투자기업의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이후 논란 끝에 한국 측 투자기업, 장흥군, 전남개발공사, 전남

“투자협약식 개최 앞두고 한국 측 기업 일방적 연기 지자체, 대책 호소에도 침묵 되레 의심하는 분위기까지”

도 등이 협상을 다시 진행했고, 300억원으로 예상되는 토지대금에 대해 5% 계약금을 한국 측 투자기업이 지불하고 가동기한 후 관 인베스트먼트 측이 나머지를 10년 분할 납부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여기에 장흥군이 25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투자 유치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1일 이낙연 전남지사, 관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투자협약식까지 개최하기로 했으나 협약식을 이틀 앞두고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 측 투자기업이 관 인베스트먼트 측에 협약식 연기를 통보한 것이다.

이후 한국 측 투자기업은 “자금 여력이 없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며 관한국장유테마파크(주)의 보유지분 20%를 포기하고 철수해버렸다. 한국 측 투자기업 관계자는 “토지 매입까지 초기 자금을 독자적으로 투자하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임장이 난처해진 관 인베스트먼트는 장흥군이나 전남도로부터의 해명이나 입장 표명을 기다렸으나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관 인베스트먼트 황용선 전무는 “일방적으로 투자협약식이 무산된 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도 없었다”며 “답답해서 두 달이 지나 장흥군청 담장 밑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미 인사가 나 담당자도 바뀌었고, 한국 측 투자기업이 철수하면서 분위기도 전과 달라졌다. 이후 국내 기업 없이 진행되는 외국 자본 유치에 지자체가 부담을 느꼈고, 관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것이 황 전무의 말이다.

이번 투자 유치 성공을 통해 13.7%에 불과한 바이오산단 분양률을 44%까지 상향시키려했던 장흥군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장흥군 관계자는 “수개월간 협상을 해오면서 합의가 다 잘 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외국 자본 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소 구제역 비상 2011년 이후 4년 만에 경기 안성의 한 농장에서 소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 방역기관들도 비상이 걸렸다. 6일 광주 북구 삼호축산에서 출입차량에 대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전 이전 효과...광주·전남 거래소 시장 지각변동

거래량·거래대금 대폭 증가

새해 광주·전남지역 거래소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나주 빛가람도시에 입주한 한국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본사 이전으로 지역 거래소시장의 새 식구가 됐는가 하면, 타이어 금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세화아이엠씨(회장 류희열)가 유가증권(KOSPI) 시장 입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달 나주 빛가람도시 입주로 지역 거래소 시장에 등지를 틈 한국전력의 가세로 지역 경제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 시장의 지평을 넓히는 핵심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주당 4만1850원(6일 종가 기준)에 거래되는 한국전력 주식은 시가총액이 26조8700억원에 달하고 1일 거래량도 108만주가 넘는 주요 종목이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거래소 시장에 상

장된 업체는 유가증권시장(KOSPI) 14개, 코스닥 12개, 코넥스 1개 등 27곳에서 한국전력이 추가로 28곳으로 늘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KOSPI 입성이 확실시 되는 세화아이엠씨도 지역 거래소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기업이 거래소 KOSPI에 직 상장하는 경우는 지난 1999년 화천기공 이후 15년만이다. 전체 KOSPI에서 지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되고 시가총액은 더더욱 낮은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99년 설립된 세화아이엠씨는 연 매출액이 2000억원을 넘는 ‘얼짜 기업’으로 현재 미주·유럽·아시아 전역에 해외 사업장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출로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권혁용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장은 “지난 15년간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 업체 수는 급증했는데 광주·전남지역은 정제돼 있어 아쉬웠는데 한전과 세화아이엠씨가 지역 상장사로 참여하게 돼 지역 주식시장에도 활력이 기대된다”며 “지역 투자자들의 관심속에 거래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알립니다

새봄을 여는 즐거운 도전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폴·하프코스 문화전당 출발

2월 5일까지 참가 접수

최고의 전통, 최상의 코스, 최선의 진행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1일 개최됩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세계 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은 2015년 제50회 대회를 맞아 호남은 물론 전국 마라토너들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



로 열리며 폴코스와 하프코스 두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에서 출발해 영산강변을 따라 승촌보를 반환, 상무시민공원으로 끝

인하는 명품코스입니다. 광주일보사는 이번 대회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족·동호인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불의 힘찬 기운이 약동하는 대지를 함께 달립니다.

- 일시 : 2015년 3월 1일(일) 08 : 30 ~ 16 : 00
- 종목 및 코스
(폴코스 : 아시아문화전당 → 승촌보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인)
(하프코스 : 아시아문화전당 → 서창교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인)
- 출발시간 : 폴코스 08 : 30, 하프코스 08 : 35
- 마감 : 2015년 2월 5일(목)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kjmedia.co.kr) (062)220-0541
-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 주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光州日報社

기상예보관들의 24시 ▶6면



광주, 시간 속을 걷다 ▶18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예향’의 인물마케팅, 속도를 높여라

‘사람 브랜드’로 주목받는 국내외 도시
윤이상, 김춘수, 박경리의 통영
존 스타인벡, 헤밍웨이의 살리나스와 오크파크

기획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의 해 상생의 ‘전당효과’를 기대한다

문화 인프라 엮어 관광의 랜드마크
예술투어 구심점, 콘텐츠 발전소로

노충혼의 세계 문화도시 기행 ①
세계문화의 심장이 뛰는 영국 런던을 가다

아시아 스토리 로드
‘문화의 용광로’ 말레이시아
각양각색, 공존의 아름다움을 만나다

예향 초대석
92세의 현역 화가 김영자
“내 창작과 건강의 비결은 열정”

마주 앉은 책과 삶
눈높이 심리학 전하는 심리학자 박금주

남도의 장인
나전칠장 김기복
‘자개의 영롱한 빛’에 반해
나전에 바친 60년 세월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국내외 현장들 가다
옛 철로에 조성된 세계 최초의 공중(空中) 정원
파리12지구 프롬나드 플랑테

문화 화제
작가 윤태호가 말하는
‘마생 열풍’
“사랑은 공감에서 오는 법”

책 & 푸드
“이것이 진정한 천연효모빵”
아티장 흥의 ‘사워 도우’빵

스타 데이트
**‘힐라’에서 연예기자
열연 중인 배우 박민영**
“세상의 ‘개러터’ 위해
제대로 망가지고 있어요”

화가의 작업실
수행하듯
그림 그리는
‘만다라’ 화가
임희진

정윤수의 스포츠 인사이트 ①
독재의 간고 속에서도
인간의 등불 켜던
진정한 축구형제 펠레!

문화 현장
지역미술계 창조적 씨앗 뿌리는 무언파워
정승규, 정희남, 이양숙 관장

스포츠 스토리
KIA 타이거즈 사령탑으로 28년 만에
귀환한 김기태 감독의 속 시원한 포부
“핑계는 없다, 팬들의
기쁨 되겠다”

아트 & 리빙
전통의 아름다움에
현대적 감각 잇대는
조각보 명인 이남희씨